

## 재속프란치스코회 총회에서 교황의 연설

2021년 11월 15일

오늘 아침,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 사도궁에서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총회 참석자들을 접견했으며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 교황님의 연설

친애하는 재속프란치스코회 형제자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한 말로 인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여러분들의 총회를 계기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여러분들의 소명과 사명에 적합한 몇 가지 요소를 떠올려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성소는 거룩함에 대한 보편적인 부르심에서 태어났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평신도는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합니다라고 우리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더욱 연합되어 개인 가족, 사회 및 교회 생활의 모든 차원에서 세례와 견진의 은총을 나타내고 세례 받은 모든 사람에게서 거룩함에 대한 소명을 완수합니다.

일반 회헌과 성 바오로 6세가 승인한 회칙이 요구하는 대로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으로 부름 받은 이 거룩함에는 오직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 “선, 모든 선, 최고의 선”이신 그 분에 의해 이끌리고 정복되고 변화된 마음의 참회가 포함됩니다.(성 프란치스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찬미) 이것이 당신을 진정한 “회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회개의 길,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 하늘 아버지의 뜻과 일을 하겠다는 결심을 “고행”으로 제시합니다. 그는 자신의 유언에서 자신의 개종 과정을 다음과 같은 말로 설명합니다. “주님은 나, 프란치스코에게 이렇게 참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나병환자를 보는 것이 매우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 그리고 내가 그들을 떠났을 때, 나에게서 괴롭게 보였던 것이 몸과 마음의 달콤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나는 조금 세속에 남아있다가 세상을 등졌습니다. (1-3)

참회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주도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회개를 시작하도록 주도해 주셨습니다.” 하느님은 회개하는 자를 결코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행복입니다. "나에게 쓰라리게 보였던 것이 몸과 마음의 달콤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프란치스코가 택한 회심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과 사명에서 성취하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보속"을 혼동하지 맙시다. 이러한 금식, 자선, 고행은 하느님께 마음을 열기로 한 결정의 결과입니다. 하느님께 마음을 열어라! 평범한 사람들 속에 살면서 프란치스코 성인의 스타일로 그리스도께 마음을 여는 것. 프란치스코가 "그리스도의 거울"이었던 것처럼 당신도 "그리스도의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프란치스코 정신에 따라 세상에서 살기로 헌신한 남녀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준수하는 것으로 구성된 정신. 재속 프란치스코의 소명은 Poverello, sine glossa의 스타일; 복음을 삶의 "형태와 규칙"으로 삼아 세상에서 복음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복음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즉 예수님 자신이 당신의 삶을 만들어가게 해드리십시오. 이런 식으로 당신은 가난, 소수, 단순함을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과 구별되는 표식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 프란치스코와 당신의 세속적 정체성으로, 당신은 밖으로 향해 나아가는 교회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사람들 한가운데이겠지요. 그리고 거기서 독신이든 기혼이든 평신도로서, 사제와 주교로서 각자의 고유한 소명에 따라 가식 없이 단순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프란치스코 성인과 여러분들의 수도회의 많은 남성과 여성이 그랬던 것처럼 항상 가난한 자들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만족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날의 변방, 실존의 변방으로 나가서 복음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았으며(루카 4,18 참조), 무엇보다도 당신의 수호성인이신 헝가리의 성 엘리사벳이 그랬습니다. 과거의 "참회자들의 형제회"가 병원, 약국, 급식소 및 기타 진정한 사회적 자선 활동을 통해 두각을 나타내었듯이 오늘날에도 성령께서는 새로운 형태의 빈곤이 요구하는 창의성을 가지고 같은 자선을 실천하도록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

당신의 세속 생활이 친밀함, 연민 및 온유함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진 남녀로서, 희망을 실천하고 그것을 "조직"하여 실제 일상의 상황, 인간 관계, 사회적, 정치적 참여로 옮겨가는 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고통을 덜어줌으로써 내일의 희망을 키워내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위대한 프란치스칸 가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형제애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특히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다양성과 자율성에 대한 존중으로 프란치스코 가족 전체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염원을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항상 활발한 상호 친교 속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라고 느끼는 세상을 함께 꿈꾸고 그것을 건설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 Fratelli tutti, 8 참조):정의를 위해 싸우는 남녀, 그리고 온전한 생태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선교 프로젝트에 협력하고 스스로를 평화의 장인으로 만들고 팔복의 증인이 되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참회의 길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 합당한 마음으로부터 이 모든 결실의 제안이 우러나왔으며, 그 참회의 길은 가난을 사랑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와 프란치스칸 가족의 모든 성인들이 당신의 여행에 동행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동정녀가 만든 교회”이신 성모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